

2024-04-29 (2024-18호)

04월 29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불 붙은 엔 약세와 매파 전망 짙은 5월 FOMC

서울, 4월2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이벤트를 전후해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60-1,400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폭에 대한 조정으로 강달러 흐름은 더 강화됐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 연준 이벤트를 소화해야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은 도비시한 회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최근 연준 이벤트 직후 달러는 대체로 약세였다. 매파 섹채를 띤 연준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인하 전망을 합리화하는 발언에 보다 많은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 이후 뒤따르는 핵심 경제지표들이 이러한 전망을 지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시장은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연말까지 미루게 됐다. 또한, 올해 초 연간 150bp 금리 인하폭은 현재 약 35bp로 축소됐다.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간 여러 연준 위원들은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로 인해 현재 강달러 포지션이 깊은 점을 감안하면 연준 회의를 전후해 달러 차익실현 가능성도 있지만, 예상보다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강달러에 더욱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아울러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 4월 고용지표 따라 시장 결이 재설정될 수도 있다.

한편,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뚜렷하게 조정 받지 않는다면 엔 약세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환율보다는 물가와 경기에 보다 초점을 둔 일본은행(BOJ) 정책회의 결과를 감안하면 엔 약세 기조가 당장 꺾일 기미는 없다. BOJ 총재는 놀랍게도 엔 약세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엔 대비 원 절하 속도는 훨씬 더더졌지만, 엔 움직임은 원화에 있어 여전히 핵심 변수다. 연준 결과에 따른 엔 반응을 살피며 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국의 4월 수출입·무역수지(잠정) 결과를 통해 펀더멘털 및 외환수급 개선과 국내외 고금리에도 인공 지능·반도체주 강세에 따른 외인 주식 자금 유입이 뒷받침된다면 원화의 일방적인 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월말 수급에서 단단한 달러 매물이 먼저 확인돼야한다.

달러/원 1,400원 앞에서 상승압력이 잠시 꺾인 환율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지 주목되는 한 주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5대 이슈

### ⊙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

투자자들은 오는 4월30일~5월1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에서 연준이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지만 올해 후반 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지난 3월 연준은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해 그 정도로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것은 국채 수익률 상승과 최근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폭을 연초에 예상했던 150bp에서 약 35bp로 축소 전망하고 있다.

### ⊙ 기술주 실적

2023년 불같은 주가 상승을 이끈 '매그니피센트 세븐' 메가캡 중 이제 아마존닷컴이 30일, 애플이 5월2일 각각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테슬라, 메타플랫폼과 같은 일부 동종 기업들은 엇갈린 성과를 보였다.

애플 주가는 올해 10% 이상 하락하면서 빛을 잃었다.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19% 감소한 영향에 1분기 이익 감소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투자자들은 아마존이 내놓을 소비자 지출에 대한 견해도 관심을 집중할 전망이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8% 상승하며 훨씬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 규제도 화두가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향후 9개월에서 1년 동안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 ⊙ 중국 PMI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깜짝 호조를 보인 데 이어, 4월의 지표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제 회복이 실제로 힘을 얻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중국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며, 곧이어 차이신/S&P글로벌 제조업 PMI도 발표될 예정이다.

긍정적 지표는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려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중국 증시에 대해 점점 더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량주 중심의 CSI300지수는 2월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자국 통화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위안 가치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무역 상대국.CFSCNYI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는 반갑지 않

은 신호다.

◎ **유로존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오는 30일 발표될 유로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데이터는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예금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베팅을 강화할 수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존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2.4%로 둔화된 후 4월 인플레이션 수치도 ECB가 인하할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줄 가능성이 있다.

ECB가 올해 60bp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유로가 달러 대비 크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 **5월에 팔아라**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5월은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해 후반까지 숨고르기를 하기에 이상적인 시점이다.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은 주식시장 수익률이 가장 좋은 6개월은 11월부터 4월까지이고 가장 낮은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라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S&P500지수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 평균 4.8% 상승했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1.2%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집계를 보면, 11~4월의 5~10월 대비 초과 수익률은 1%로 줄어든다. 지난 10년 동안은 11~4월이 5~10월보다 1%포인트, 지난 5년 동안은 3%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낮았다.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29일(일)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미래전략포럼 (09: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29일~5월3일, 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4월30일(화)

- ⊙ 통계청: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11:30)
- ⊙ 한국은행: 2024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잠정) (12:00)
- ⊙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 효과 분석 (12:00)
- ⊙ 한국은행: 2024년 제7차(4.12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 한국은행: 총재 ASEAN+3, ADB 연차총회(30일~5월6일, 조지아 트빌리시)

5월1일(수)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4월 수출입동향 발표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08:00)

5월2일(목)

- ⊙ 통계청: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KDI: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12: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밸류업 2차 공동세미나 (14:00)
- ⊙ 기획재정부: OECD 5월 세계경제전망 (1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 (2~3일, 조지아 트빌리시)

5월3일(금)

-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18:3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4월29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4월29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4월	96.7	-0.30
4월29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4월	-8.6	96.3
4월29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4월	-14.7	-14.7
4월30일	08:30	일본	실업률	3월	2.5%	2.6%
4월30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3월	3.5%	-0.6%
4월30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3월	2.2%	4.6%
4월30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4월	50.4	50.8
4월30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4월		53.0
4월30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4월	51.0	51.1
4월30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4월	2.4%	2.4%
4월30일	18:00	유로존	CPI NSA	4월		125.33
4월30일	18:00	유로존	GDP 속보치 YY	1분기	0.2%	0.1%
4월30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2월		-0.1%
4월30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0 MM SA	2월	0.1%	0.1%
4월30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4월	45.0	41.4
4월30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4월	104.0	104.7
5월1-8일		미국	자동차판매	4월		3.030M
5월2-9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4월		1,290.6B
5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SA	4월		49.9
5월1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4월26일 주간		196.7
5월1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보고서	4월	175k	184k
5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4월		49.9
5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4월	50.1	50.3
5월1일	23:00	미국	JOLTS 구인이직보고서	3월	8.670M	8.756M
5월2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4월		39.5
5월2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4월	45.6	45.6
5월2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4월		90.309k
5월2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22일 주간	212k	207k
5월2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3월		2.6%
5월3일	18:00	유로존	실업률	3월	6.5%	6.5%
5월3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4월	245k	303k
5월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4월		50.9
5월3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4월	52.0	51.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29일 (월)

- ⊙ 휴장국가: 일본

4월30일 (화)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시작 (5월1일까지)

5월1일 (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오전 6시)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2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2일 오전 2시30분)
- ⊙ 휴장국가: 중국(3일까지),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독일 등

5월2일 (목)

- ⊙ 일본은행 3월18-19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8시50분)

5월3일 (금)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주최 행사 참석 (4일 오전 8시45분)
- ⊙ 휴장국가: 일본(6일까지)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 - 韓 정부, 원화채 매매 '15분 보고' 의무 완화 검토...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침

서울, 4월2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 정부가 원화 장외채권시장의 '15분 보고 의무 조치'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분 이내 보고 의무'가 외국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떨어트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글로벌은행들의 의견을 접수한 후 빠르게 대내외 의견조율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많은 외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현재 채권매매를 15분 간격으로 보고하는 현 제도가 트레이더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거래에 제약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고 개선을 요청 중"이라며 "국채발행 당국은 거래 내역 리포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행(practice)과 시스템이 외국인 투자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규제 조항은 장외 채권거래내역의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권을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된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해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에 따르면 금투협은 채권 장외거래 현황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월별로 보고하게 돼 있다. 매월 이뤄지는 거래내역 조사에서 장외 채권 거래 이후 15분 이내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금융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세 곳 이상의 글로벌은행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 은행들은 장외채권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15분 이내에 한국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규제가 외국인투자자에게 거래 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로 나눠 보고 내역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채권거래 내역의 15분 이내 보고' 의무만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글로벌은행들은 지적한다.

금투협 규정에 따르면 장외채권시장의 거래내역 보고 마감 시한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다.

채권 거래내역 보고가 오후 7시에 마감하면 역외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글로벌은행들의 주장이다. 오는 7월부터 유로클리어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되면 역외투자자가 자유롭게 원화 채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오후 7시 보고 내역 마감 데드라인'이 거래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은행들은 한국시간 오후 7시 이후에 이뤄지는 채권 거래 내역의 제출 시한과 관련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글로벌은행 서울지점장은 "원화채에 크게 투자하는 곳 중 한 번에 몇 조원씩 사는 곳들이 있는데 15분 보고 의무 때문에 천 억원 정도 사면 시장에 이미 시그널이 간다"라며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사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가려는 방향이 결국 선진국 시장으로의 변화"라며 "이런 규제를 하나, 둘씩 남겨두고 가면 역외 투자자 입장에서선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B글로벌은행 서울지점장은 "정부 당국자와 외국계은행 채권담당자간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여러 은행들이 정부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저해할 경우 한국의 WGBI 가입에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자동 보고 시스템이 구현되면 좋긴 하지만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하기보단 하루에 한 번 정도 거래 내역을 모아서 보고하도록 하는 게 접근성 완화 차원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채권 거래 내역의 15분 이내 보고 의무가 외국인투자자의 원화 채권시장 접근성을 저해할 경우 오는 9월 FTSE러셀의 WGBI 편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WGBI 지수 운용을 맡고 있는 FTSE러셀은 국가별 시장 접근성을 레벨 0~2로 구분하고 레벨 2 국가만 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 접근성이 레벨 1이었던 한국은 지난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면서 향후 시장 접근성 레벨 상향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돼 지난해부터 WGBI 공식 편입이 가능한 레벨 2 국가로의 등급 상향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FTSE러셀은 국가별 시장 접근성을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투자자 서베이 결과다.

당초 한국의 WGBI 지수 편입의 표면적 조건은 '외국인투자 비과세' 조치였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빠르게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투자자 전반의 의견이 확인돼야 WGBI 지수 편입도 가능하다.

외환당국이 지난해 2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3자 FX' 등 외국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가고 있는 것도 큰 맥락에선 WGBI 편입 가능성 제고와 연계해 볼 수밖에 없다. 외국인투자자의 15분 이내 채권 거래 보고 의무 조치 역시 WGBI 편입을 위한 시장 접근성 개선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장외채권거래의 15분 이내 보고 규제 조정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있는 만큼 정부 부처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 모니터링 기능 저하를 이유로 규정 개정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외채권 거래내역의 15분 이내 보고 조치를 유지하는 건 한국의 금융당국이 지난해 1월 내놓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참여해 틀을 마련한 당시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원



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이 주식 매매를 확정하고 결제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제가 그동안 통합 계좌의 활용도를 떨어트렸다는 게 당시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같은 논리로 국제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내역 보고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오는 5월로 예정한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후 '채권 투자내역 15분 이내 보고' 규제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편집 박예나 기자)

((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지방 정부 채권에 대한 국경 간 투자 점검 - 소식통들

홍콩, 4월24일 (로이터) -

중국 규제 당국이 지방 정부의 역외 채권에 투자하는 국경 간 메커니즘 이용을 점검하고 있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이는 금융 위험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의 신규 역외 채권 발행이 최근 급증한 것은 역외 채권 발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문 위기가 재정 건전성을 압박하는 가운데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가 많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달 적격국내유한책임회사(QDLP)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에게 지방정부 자금조달용 특수법인(LGFV)의 역외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했다.

2012년에 처음 시작된 쿼터 기반의 QDLP 채널은 외국 및 국내 펀드 매니저들이 중국 고액 자산가 및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역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QDLP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것은 이 메커니즘이 지방 정부의 역외 채권 투자에 사용되면서 역외 채권이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지방 부채 위험을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최근 슈퍼마이크로·델 서버에서 수출 금지된 엔비디아 반도체 획득

베이징/싱가포르, 4월23일 (로이터) -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한 조치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대학과 연구 기관들이 리셀러를 통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 지능 반도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가 수백 건의 입찰 문서를 검토한 결과, 11월17일 미국이 더 많은 반도체와 국가에 라이선스 규정을 적용하도록 금수 조치를 확대한 이후 중국 기관 10곳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 대만의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가 제조한 서버 제품에 내장된 고급 엔비디아 반도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11월20일부터 2월28일 사이에 이루어진 입찰에 따르면 이 서버들에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가 장착되어 있었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그 협력사들이 제3자를 통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반도체의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 아니다.

반도체를 판매한 11개 업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소매업체들이었다. 로이터는 이들이 주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11월에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하기 이전에 확보한 비축분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엔비디아는 입찰서류에 수출 제한 이전에 수출되어 널리 판매된 제품이 명시되어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 파트너 중 어느 누구도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무시할 수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버 제조업체들은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거나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매기관에는 중국 과학원, 산둥 인공 지능 연구소, 후베이 지진청, 산둥성 및 서남부 지역 대학교, 하이룽장성 정부 소유의 기술 투자 회사, 국영 항공 연구 센터, 우주 과학 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구매기관과 소매 판매업체 중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로이터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로이터에 진행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산업 보안국이 제한된 반도체의 전용을 모니터링하고 최종 용도 확인을 실시하며 잠재적인 위반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당국이 유명 회사 이용 등 신뢰할 수 있는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매수냐, 관망이냐... 美 증시 하락에 고민하는 투자자들

뉴욕, 4월22일 (로이터) -

미국 증시가 반 년 만에 처음으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저가에 매수를 할지, 아니면 더 하락할 때까지 버틸지 고민하고 있다.

격동의 몇 주를 보내며 S&P500지수는 3월28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했다. 10월 이후 최대폭이다. 최근에 이같은 하락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S&P500지수는 1929년 이후 매년 평균 세 차례 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1분기 S&P500지수를 10% 상승시킨 요인(탄력적인 경제 성장과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등)이 여전히 유효하며 장기적으로 주가를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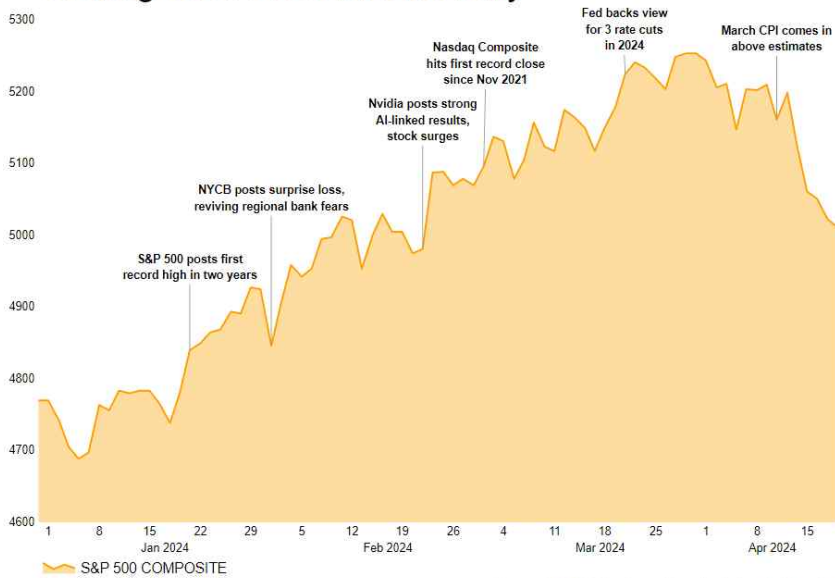
하지만 지난주에는 매도세가 우세했다. 19일 S&P500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최장 기간이었다.

일부 투자자는 이미 주가 하락에 매수에 나섰지만, 다른 이들은 인플레이션 경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기업 실적의 강도가 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킹 립 베이커애비뉴웰스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는 "하락이 많이 늦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단순한 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립은 고객들을 위해 주식 익스포저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주가가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S&P500지수가 3월28일 고점 대비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Stalling U.S. stock market rally



Source: LSEG Datastream/Graphic by Lewis Krauskopf

역사적으로 볼 때 연초 강세장 뒤에는 상당한 폭의 하락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스스로를 바로잡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S&P500지수는 1분기에 10% 이상 상승할 때마다 평균 최대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 이후 이런 상황이 11차례 있었는데, 그 중 지수가 상승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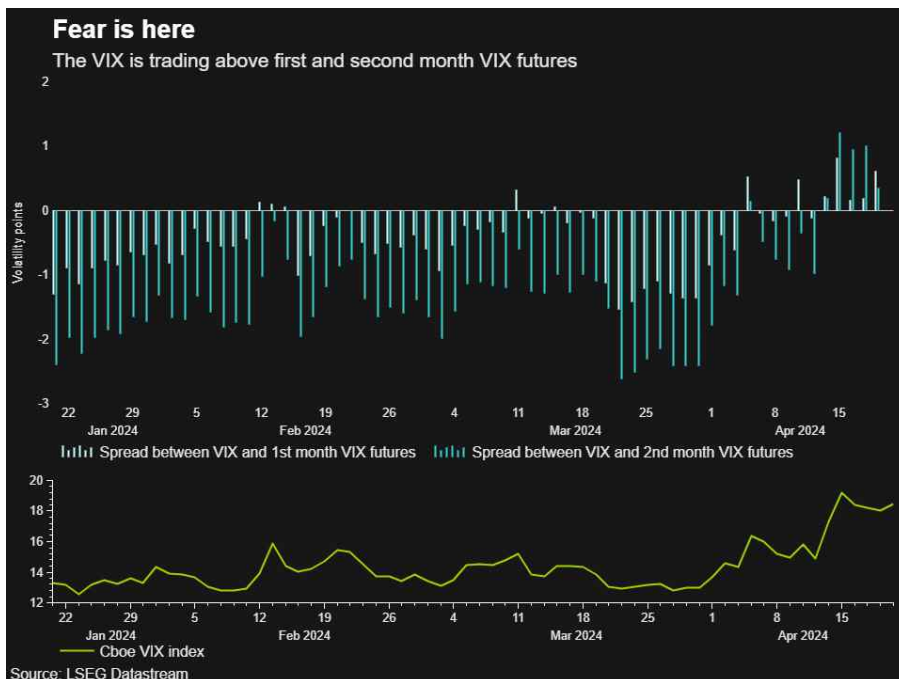
그 해를 마감한 것은 10번이었다.

최근 부진을 소형주 포지션 확대 기회로 삼고 있는 카슨그룹의 소누 바기스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는 "약간의 하락이 있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고객들은 최근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을 8억달러어치 매도해, 3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편, 시장이 상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일부 변동성에 민감한 펀드들이 이미 매도를 시작했으며 시장이 더 불안해지면 더 많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노무라의 애널리스트들은 S&P500지수가 향후 2주 동안 일평균 1% 하락할 경우 이런 펀드들이 약 450억달러어치를 매도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CBOE 변동성 지수 수준도 주시하고 있다. 변동성 지수는 6개월래 최고치 19 부근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변동성 전문가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소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세스 히클 마인드셋웰스매니지먼트 매니징 파트너는 "현재 중동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은 것에 놀랐다"면서 "우리는 약간의 포지션을 변경했지만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금주 발표될 일부 대형주들의 실적이 주가를 지지하거나 매도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 메타 플랫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곧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실적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5년부터 가입자 수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이 성장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19일 주가가 하락했고, TSMC는 반도체 부문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퀀시 크로스비 LPL파이낸셜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19일 노트에서 "S&P500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예상 이익 대비 20배 이상이기 때문에...대형 기술주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지난주 과매도된 시장을 더 깊은 과매도 영역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썼다.

투자자들은 4월30일-5월1일 연준 회의에 앞서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인 26일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에도 주목할 것이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은 강세장의 근원 동력을 약화시켰으며, 투자자들은 2024년 초 150bp에 달했던 올해 금리 인하 예상폭을 약 40bp까지 낮췄다.

팀 그리스키 잉겔스앤스나يدر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매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하락 시 매수를 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재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오는 29일 외환제도 변경 6회 차 시범운영 실시... 은행·증권 등 참여기관 확대

서울, 4월2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하반기 공식시행할 외환시장 제도 개선을 앞두고 외환당국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오는 29일 6회 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당국이 인가한 중개사 9곳이 모두 참여해 달러/원 스팟 및 탐넥 형식의 스왑거래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특히, 달러/원 스팟 거래 테스트 시간을 자정을 포함시켜 전산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의 동시 거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볼 예정이다.

한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관도 확대된다. 현재로서는 MUFG 서울지점과 전북은행, 메리츠증권 등의 국내기관이 참여할 계획인 가운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도 참여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회차 시범운영 때는 RFI 자격으로 SSBT 홍콩·런던과 HSBC싱가포르가 참여한 바 있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22일 기준, 19개 기관 RFI 등록 완료... BNP파리바 추가

서울, 4월22일 (로이터) -

올해 7월부터 공식 시행될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앞두고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이 진행 중인 가운데 BNP파리바 파리(본점)와 런던지점이 추가돼 19개 기관이 RFI 등록을 완료했다.

당국에 따르면 22일 기준 RFI로 등록한 기관은 SSBT 홍콩·런던지점, HSBC 싱가포르지점, CA-CIB 파리(본점), MUFG 도쿄(본점), SC은행 런던(본점), 국민은행 싱가포르·런던지점, 미즈호은행 도쿄(본점), 도이치은행 프랑크푸르트(본점)·런던지점·싱가포르지점, 하나은행 런던·싱가포르지점, 뉴욕멜론은행 뉴욕(본점), 뱅크오브아메리카 뉴욕(본점), 디비에스 싱가포르(본점), BNP파리바 파리(본점)·런던지점 등이다.

(박예나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美 엘런 재무장관 “환시 개입, 드문 상황에서만 용인 가능”

워싱턴, 4월26일 (로이터) -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의 강세와 높은 금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각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은 드문 상황에서만 용인된다고 주장했다.

엘런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강세와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달러 상승은 "미국 경제의 강세와 금리 수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달러 대비 3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엔화를 지지하기 위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언

급하거나 현재 엔화 수준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다.

옐런 장관은 "모든 주요국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것이며, 이는 G7의 약속"이라면서 "무질서한 시장이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개입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사전에 협의되도록 하기 위함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美 옐런 재무 : 美 경제, GDP 수치보다 강할 것... 中 과잉 생산에 모든 옵션 열려 있다

워싱턴, 4월26일 (로이터)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한 1분기 GDP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과도한 산업 능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를 다룬 로이터 넥스트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은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면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상향 수정될 수 있으며, "특이한" 요인들로 인해 경제가 거의 2년 만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후 인플레이션이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GDP가 연율 1.6% 성장했다는 상무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2.4%보다 낮은 수치이며, 무역과 민간 재고의 상당한 감소로 2023년 4분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한 2023년 4분기에 2.0%를 기록한 상승한 식품 및 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1분기 3.7%로 상승해 우려스러운 인플레이션 급등을 보여주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경제의 다른 영역이 냉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인플레이션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펀더멘털은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는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타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의료, 에너지, 주택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력을 유권자의 지지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경제에 더 나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을 7%포인트 차로 앞섰다.

옐런 장관은 "내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소비자 지출과 투자 지출의 호조"라면서 "최종 수요의 이 두 가지 요소는 작년 성장률과 일치했다...이것이 계속해서 견실함을 보인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드라인 수치는 약간 빠졌지만 이는 특이한 요인들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한편 미국 경제에 대한 한 가지 위협 요인인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옵션도 배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책결정권자들이 전기 자동차, 태양열 패널 및 기타 청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과도한 산업 생산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은 했지만, 그들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로부터 미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또는 기타 조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옐런 장관은 가능한 대응책으로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 유럽, 일본, 멕시코, 인도 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루나 일주일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 3,000억달러의 이자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이 G7 동맹국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